



보도시점 2023. 12. 19.(화) 06:00
< 12.19.(화) 석간 >

배포 2023. 12. 18.(월)

섬유업계 친환경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전환 구심체 가동

-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SCT) 포럼」 출범

* SCT : Sustainability and Circularity in Textiles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19.(화) 섬유패션 업계의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학연 논의체인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공식 발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 선도국의 친환경 규제와 나이키, ZARA, H&M 등 글로벌 기업들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 납품 요구 등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대전환 흐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섬유패션업계로서는 변화하는 세계 섬유패션시장 참여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개별 기업 차원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은 있어 왔으나, 섬유패션 업계 전체를 견인하여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사회적 구심체가 없었다. 이에 섬유패션 업계에서는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을 발족하여 향후 섬유패션업계의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를 발굴, 그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족하는 포럼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간사를 맡아 민간 자율 방식으로 구성·운영하면서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 과제 발굴, 시범사업 추진 등 역할을 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①제도개선, ②순환생태계, ③탄소중립, ④에코디자인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기업, 연구소, 학계, 섬유산업 스트림별 협회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이날 포럼 출범식에서 “글로벌 섬유패션 산업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이행 과제를 논의하여 실행하는 구심체로 포럼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면서, 포럼 운영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고 섬유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섬유탄소나노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280)
		담당자	사무관	양영훈 (044-203-4283)

참고1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SCT) 포럼」 운영 계획(안)

□ 추진 배경

- EU를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 선도국 및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대전환 흐름에 우리 섬유산업의 대응 시급

* 파리 기후변화협약('15년)이후 국가별 net-zero 추진, EU 지속가능 순환섬유 전략('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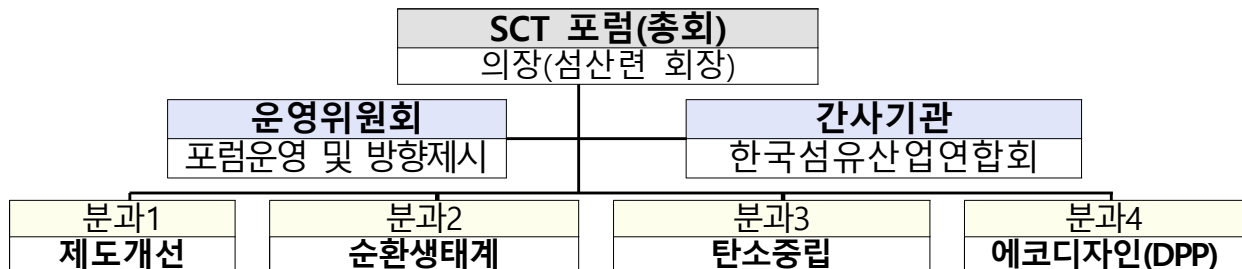
* 글로벌 패션기업(H&M, ZARA, 아디다스 등)이 지속가능 소재를 활용한 납품 요구

⇒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역량을 결집하고, 이행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는 민간중심의 포럼 운영

□ 포럼 운영 방안

- (활동) 순환경제로의 전환 주체인 섬유업계 중심으로 포럼 구성
→ 과제(제도, 사업) 발굴 → 민간 또는 민관합동 시범사업 등 추진
- (구성) 업계 공동체인 섬산련 중심으로 포럼 의장(섬산련 회장) 및 사무국을 맡아서 분과위원회(4개) 활동 등 포럼 운영을 지원

< 포럼 구성안 >



□ 주요 활동 내용

- ① (제도 개선) 자연유래·리사이클·자연분해 등 친환경 섬유 기술 조사, 자원순환 제품 품질 표준화 및 시험인증 기준 마련 등
- ② (순환생태계 구축) 폐섬유 재활용 등 순환시스템 설계, 순환형 (폐의류→원사→직물→의류) 제품화 시범사업 추진 등
- ③ (섬유제조 저탄소화) 섬유 생산현장의 탄소 배출량 평가·검증 체계 마련, 에너지·탄소 저감형 제조공정으로 전환 지원 등
- ④ (에코디자인 확산) 제품 생산이력 확인 시스템(DPP*) 시범사업, 친환경 섬유제품 설계·제조·공급 가이드라인 수립 등

* Digital Product Passport: 디지털 제품 여권 (EU는 '25년 표준제정, '28년 시행 예정)

참고2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SCT) 포럼」 출범식 개요

□ 추진개요

- 지속가능하고 순환 가능한 4세대 섬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소통·공감대 형성, 기술수요 발굴, 추진전략 수립 등 논의 필요
- 생산-유통-소비-회수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섬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포럼(SCT 포럼)」 출범

□ 주요내용

- (일시/장소) '23.12.19(화) 10:00~12:30 /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
- (참석자) 업계·연구원·학계·정부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
 - * 스트림별(방직, 화섬, 직물, 염색, 의류패션 등) 주요 업체 및 협회, 연구소, 산업부 등

□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1:10('70)	○ 포럼 출범 기념 세미나	
	(1) 섬유산업 ESG Trend와 기업의 대응전략	• 딜로이트 백인규 파트너 (ESG 센터 리더)
	(2) ESG 경영 및 순환경제 추진사례	• 효성TNC 이재우 상무 박노만 PL
11:10~11:20('10)	○ 개회사	의장(섬산련 회장)
11:20~11:25('5)	○ 축사	산업부
11:25~11:45('20)	○ 포럼운영 계획 발표	섬산련
11:45~11:50('5)	○ 사진 촬영 및 자리 정돈	참석자
11:50~12:30('40)	○ 오찬	참석자